



# GS건설의 안전 메카, 안전혁신학교를 찾아

취재 | 최종덕 기자



##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나?

한 기업에 있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하고자하는 의지와 능수능란한 관리감독자들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이다. GS건설에 안전혁신학교가 설립된 것도 전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능력 향상이라는 총체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

2005년 12월, GS건설을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문을 연 안전혁신학교는 실제 건설현장과 똑같은 작업체험장과 재해체험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탄생했다. 개교 이후 GS건설 임직원과 협력회사 리더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 교육생들을 안전혁신리더로 육성하여 건설현장 전반에서 건설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는 그동안 우리나라 체험안전교육 분야를 주도해왔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국내 건설안전분야의 안전교육에 있어 혁신을 가져왔다. 이는 다시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다른 대형 건설회사들의 벤치마킹하고 싶은 안전관리시스템 1순위가 되었다.

##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있는가?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개인의 혁신과 강력한 실천문화 창달에 무게중심을 두고 안전한 건설시 공문화를 리드해왔다. GS건설을 명실상부한 Global Leading Company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안전혁신학교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혁신학교는 커리큘럼에서도 인상적이다. 안전교육하면 흔히 듣게 되는 체험학습 위주, 참여하는 학습, 이론보다 실행에 무게를 둔 학습 등을 GS건설에서는 새롭게 재구성하여 안전혁신학교만의 커리큘럼으로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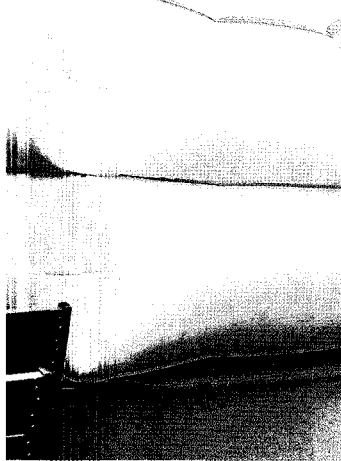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해체험장!

추락, 붕괴, 가시설, 철골, 교량, 흙막이, 가설전기, 산소결핍, 응급처치 등 사고 다발공정을 중심으로 위험상황을 설정해 직접 위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이 왜 필요한지 보다 안전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작업발판이 기울어지면서 추락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대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3m 이상 높은 곳에서 직접 떨어지면서 추락할 때의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 한 예다. 강의동에서도 색다른 교육은 이행된다. 모랄(Morale) 훈련장, 전시실, 3차원 입체체험장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심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커리큘럼은 총 60여 가지의 테마로 오늘날 시대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있다.

##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한다. 안전혁신학교의 목표, 즉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전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수 기준 30명을 넘기지 않다보니 한 주기(전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이 교육을

5년 전 '국내 건설업계 최초 안전혁신학교 설립'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산업안전 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던 GS건설 안전혁신학교인데 지금도 그 명성을 높여가며 GS건설의 안전문화 메카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건설안전 작업체험장, 재해체험장, 강의동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 GS건설 임직원 4,000여명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만큼 GS건설만의 튼튼한 안전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곳, 안전혁신학교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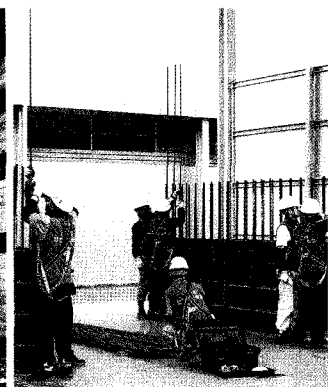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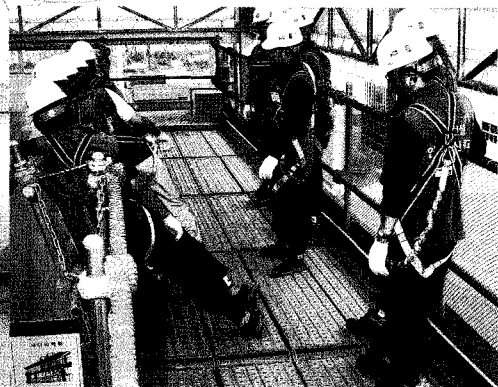


받는 기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반복교육의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안전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반 안전교육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담당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과 해당업무에 있어 지켜야 할 안전가이드를 심층 있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교육시스템에 개선을 도입한지 반기가 지나고 있지만 교육성과와 직원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의 노력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에 있어 교육의 혁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들의 커리큘럼을 공유할 만큼 이들의 교육방식과 기자재들은 최고라 할 수 있다. 국내기업들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것도 이들의 우수성을 배우기 위함일 것이다. 왕진욱 학교장은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우리 것을 벤치마킹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산업안전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산업재해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라는 말과 언제든지 견학을 원한다면 안전혁신학교는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에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기업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현실이다. GS건설 안전혁신학교처럼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운영되고 안전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시설과 커리큘럼을 꾸준히 개발된다면 우리나라를 산업재해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리 될 것이라 확신한다. ☺



### 국내 건설안전교육 문화의 한 테마로 성장될 것



왕진욱 학교장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안전교육은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이러한 주입식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복교육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하는 안전교육은 지루하고 딱딱해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입식 반복교육은 강압식으로 근로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교육을 할수록 그 효과는 오히려 감퇴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안전교육의 개선을 꾸준히 추구하고 왔고,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그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건립 당시 체험현장이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설안전체험장 5개소가 전부였고, 현장 단위별로 가시설물을 설치해 안전보호구에 대한 착용 방법을 체험하는 소규모 안전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안전혁신학교는 60여 가지의 위험상황을 설정한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안전체험장과는 충분히 차별화되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GS건설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 자체적으로 최고의 안전교육학교를 설립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꾸준한 개선과 투자로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안전혁신학교 견학과 커리큘럼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안전혁신학교는 GS건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예방 시업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